



광주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진전시회

29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광주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사진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인문학자들 온라인서 독자 만난다

문학동네 카페 '우리 시대의 명강의' 연재



인문학자들이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 연재를 통해 독자와 만난다. 문학동네는 네이버 문학동네 카페(http://cafe.naver.com/mhdn/)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우리 시대의 명강의'를 매주 무료로 연재한다. 필자로는 대표적인 인문학자인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정병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 안대

희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3명이 참여한다. 매주 월요일 '삶을 바꾼 만남-스승 다산과 제자 황상'을 연재하는 정민 교수는 다산 정약용과 제자 황상을 통해 참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조명한다. 매주 수요일 '권력과 인간-사도세자 죽음의 진실'로 독자와 만나는 정병설 교수는 사도세자 죽음의 진실과 '한중록'의 세계를 꼼꼼히 짚어준다. 매주 금요일 '궁극의 시학-스물네 개의 시적 풍경'을 연재하는 안대희 교수는 고전 시학의 정수로 평가받는 '이십사시풍'을 놓고 정선, 이광사, 신위, 김정희, 오세창 등 조선 지식인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고감했는지 보여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내년 1월 14일 광주예총 회장선거

광주예총 회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광주예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판표)는 28일 '제8대 회장 선거'와 관련, 등록기간 및 선거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입후보자 등록은 2011년 1월2일부터 3일까지며 선거는 1월 14일 오후2시부터 광주 문예회관 라플레에서 진행되는 광주예총 정기총회 자리에서 열린다. 투표에는 음악협회 등 예총 산하 10개 협

회 대의원 각 8명씩 80명과 예총 임원 14명 등 총 94명이 참여하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사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 8대 회장 선거에는 현 최규철(전남대 미술학과) 회장과 정철(동신대 방송연예학과 교수) 광주예총 수석부회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도서관 '푸름이환경교실'

내년 1월 초등생 90명 대상

광주시립 무등도서관은 내년 1월 11~13일 초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푸름이 환경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눈높이 환경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제를 애니메이션 시청과

활동교구를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10분까지 진행된다. 강사는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교사 4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교육일정은 ▲1월 11일 '신기한 곤충탐험' ▲12일 '소중한 공기' ▲13일 '먹이그물 만들기' 활동이다. 참가신청은 30일까지이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13-774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다렸습니다! 2010년 마지막 프로포즈

광주극장은 해마다 영화팬들에게 프로포즈를 건네왔다. 한해동안 사랑받았던 영화, 대형 작품에 밀려 상영되지 못했던 영화, 소규모 인디영화 등이 어우러진 푸짐한 선물을 받아들이던 관객들은 늘상 행복했다. '마지막 프로포즈'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다. 1일부터 28일까지 모두 2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광주극장' 내년 1월1일~28일 영화 23편 상영

▲명감독, 명배우의 열연



야쿠자 감독의 비열한 생리를 생생하게 묘사한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아웃 레이저', '공각기동대', '아바론'을 만든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오시이 마모루의 신작 '스카이 크롤러'(사진)는 일본 영화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작품. 2009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인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하얀 리본'은 독일의 한 시골마을에서 벌어진 희귀한 사건을 좇는 클래식 스타일러풀이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코엔 형제가 메가폰을 잡은 '시리어스 맨'은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유대인 일가족의 모습을 그린 블랙 코미디다. 명배우 더스틴 호프만과 엠마 톰슨이 호흡을 맞춘 '허비의 마지막 로맨스'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으로 가던 허비가 우연히 공화국 직원 케이트와 다시 만나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 그릴 로 맨티 드라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다양한 디류의 힘



가수 윤도현이 이끄는 YB밴드가 한국 밴드 최초로 미국 '워프 투어'에 참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나는 내비'는 음악 다큐로 풍성한 음악이 함께 한다. 한국에도 오케스트라 붐을 일으킨 '기적의 오케스트라'의 '시스터'는 음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볼리비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송두을 교수의 5년간의 삶을 영글어 담은 홍형숙 감독의 '경계도시 2'는 우리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던 작품이다. 그밖에 개봉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던 범죄드라마 '예언자'(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2010년 아카데미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스릴러물 '엘 시크레토비밀의 눈동자' 등도 놓치지 아까운 영화다. 시간표는 광주극장 홈페이지(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개봉작의 유혹



개막작인 '앵글 분미'(사진)는 아피차퐁 위라세타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태국영화로 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기 위해 시골을 찾은 한 남자의 여정을 그린 판타지물이다. 프랑스 소설가 필립 클로델 감독의 데뷔작 '당신을 오랫동안 사랑했어요'는 친자식을 살해한 죄로 15년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온 풀리엠티와 그녀의 동생의 삶을 그린 영화로 베를린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작품이다. '바흐 이전의 침묵'은 위대한 음악가 바흐의 이야기와 영상, 풍부한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어우러져 있다.

▲한국영화의 조우



홍상수 감독의 영화 두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소리의 연기가 인상적인 '하하하'(사진)는 보는 내내 유쾌함을 전해주는 영화며 이선균·문성근·정유미가 주연을 맡은 '옥희의 영화' 역시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의 '시' 역시 놓치지 아까운 작품으로 주연을 맡았던 윤정희는 아태영화상 여우주연상 등 국내외의 주연상을 휩쓸었다. '삼거리 극장'의 전계수 감독 작품인 '뿔' 또 그렇게까지'와 도쿄영화제에서 최우수 아시아영화상을 수상한 신수원 감독의 '레인보우' 등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파티와 공연과 미술품 경매가 어우러진

'아트 프로젝트 그룹-V' 이색전시... 오늘 갤러리D

지역 젊은 작가들의 모임인 '아트 프로젝트 그룹-V'가 파티와 공연, 미술품 경매가 어우러진 이색 전시 연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후 5시 광주 갤러리D에서 'Artist Oblige Project'를 진행한다. 전시에는 인성·조강수·주대희·김진경·김명우·이조흥·염기준·서영기·오용석·박설·이창범·백상욱·이승일·장원석·배귀영·최미연·선예원·김용철·박성배·서영실·분홍씨

등이 참여해 개성 넘치는 신작을 발표한다. 작가와 일반 관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서로 공유하고, 경매를 통해 5만~10만원에 작품을 판매, 불우 이웃을 돕는 뜻 깊은 전시다. 또 오픈하우스 '우물 안 개구리' 공연과 DJ 파티 등 흥겨운 무대도 마련된다. 한편 이 그룹은 서울 인사동에서 '참 잘했어요!' 창립전을 시작으로 동신대 초청전, 의 062-222-80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강수 작 '가면놀이'

과천 국립현대 어린이미술관에서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

Advertisement for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a grid of 48 business listings. Each listing includes a business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businesses range from coffee shops and restaurants to medical clinic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